

2007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

- 전자업계 80% 이상이 생산, 수출, 설비투자 증가 전망



지난해 100억달러 수출 시대를 맞은 국내 전자산업이 내년에는 수출로만 1300억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11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7년도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153억달러의 수출 성적표를 낼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전자부품의 해외수요 증가로 올해에 비해 15.5% 증가한 1331억달러의 수출 실적이 예상된다. 또 올해 수입은 중국 및 대만의 저가공세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616억달러로 추산되고 내년에는 외산 가전제품과 부품소재의 수입증가로 올해 대비 9.5% 증가한 675억 달러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진흥회는 올해 생산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증산에 힘입어 전년 대비 6.3% 증가한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내수시장 침체와 출하가 하락으로 4.8% 성장하는 데 그친 231조원 규모로 봤다.

내수시장은 올해 전자제품 시장의 침체로 4.0% 성장하는 데



그친 157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내년에도 가격경쟁 심화로 올해 대비 3.5% 성장하며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동훈 이사는 “디지털전자산업의 수출은 전자부품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부품의 증가율은 두드러진 반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품목도 늘어 수출전선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14일까지 30일간 7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전자업체들은 LCD 등 전자부품의 해외수요 호조와 해외공장 가동 확대 등으로 시장을 낙관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중 생산의 경우 81.2%, 내수의 경우 76.4%, 수출의 85.3%가 올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기업의 82.6%는 시장지배력 확대와 성장품목 조기투자 등의 이유로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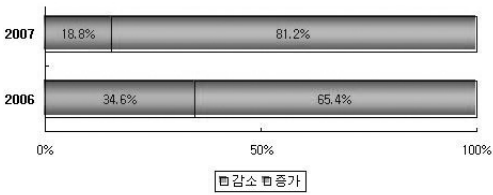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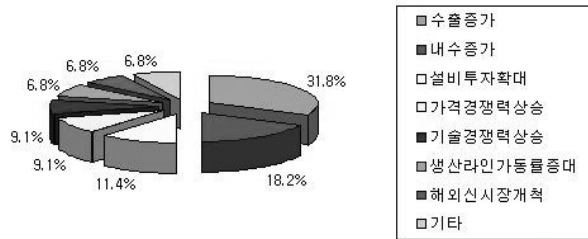
< 2007년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 >

• 생산전망

- 증가/감소에 대한 응답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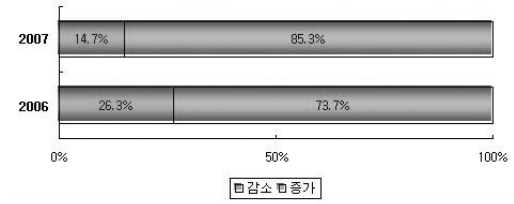


- 증가/감소 요인별 응답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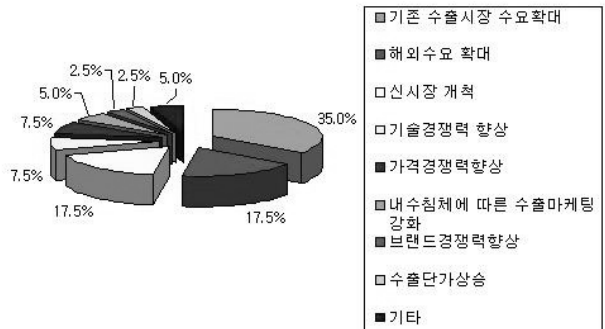


• 수출전망

- 증가/감소에 대한 응답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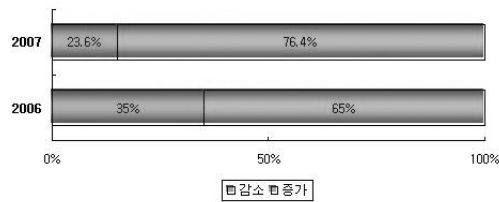


- 증가/감소 요인별 응답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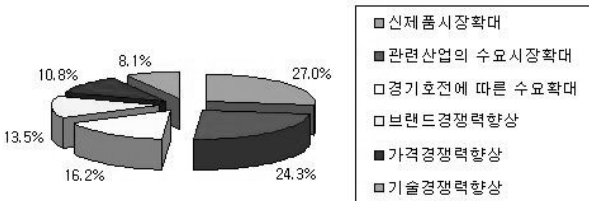


• 내수전망

- 증가/감소에 대한 응답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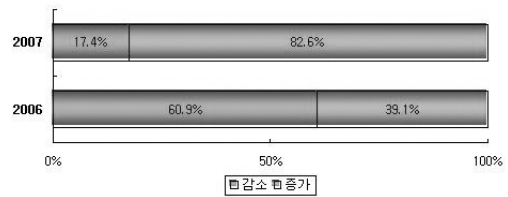


- 증가/감소 요인별 응답자 비중



• 설비투자전망

- 증가/감소에 대한 응답자 비중



- 증가/감소 요인별 응답자 비중

